

살상작전 펼쳤나...육·공 동시 무차별 발포

드러난 헬기사격

5·18 진실 밝히자

❏ 되돌아본 5월 21일

“내가 보기에는 신군부라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광주에서 의도적으로 격심한 사태를 유발하여 집권하려는 계획하에 모든 일을 꾸민 것으로 판단된다.”

(고) 조비오 신부가 지난 1995년 5월 19일 ‘전두환 등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피의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그는 검찰 조사 등에서 “80년 5월 21일 오후 1시30분에서 2시 사이 호남동 성당 상공에서 헬기 기총소사를 사제들과 함께 목격했다. 시민들은 공수부대와 달리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사제인 나조차도 총이 있다면 계엄군을 향해 쏘고 싶었다”고 치를 떨었다.

조 신부와 미국인 목사 피터슨씨, 수당

공수부대 철수 요구 평화시위

시민에 난사...무장 항쟁 촉발

헬기사격 목적 조비오 신부

“평화적 해결 끝났구나” 탄식

은 광주시민들의 목격담으로만 치부했던 5·18 헬기 사격 의혹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총탄 흔적 감정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서, 당시 시민들이 울분에 찬 목소리로 쏟아냈던 “그들은(계엄군은) 진압이 아닌 살상이 목표였다”는 증언이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기껏해야 나무 몽둥이나 화염병 등을 들고 있던 광주시민을 향해 국군이 공중에선 헬기를 통해, 지상에선 공수부대 소총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집단 발포한 사실이 확인되면 서다.

당시 광주일보 기사와 검찰 수사결과 등을 통해 집단 발포가 이뤄진 1980년 5월 21일 상황을 살펴보면, 공수부대는 이날 도청 앞 금남로 전면에 11공수여단 61·62대

대를 배치했다. 광주전 방면에서 7공수여단 35대대를 배치해 도청 방어준비를 했다.

동이 트자 전날까지의 공수부대 잔학행위에 분노한 시민들은 아침부터 금남로로 모여들어 21일 오전 8시 도청 앞에는 이미 수만 명의 시위대가 사제 2구가 실린 손수레를 앞세우고 공수부대의 만행을 규탄하며 계엄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민들이 들고 있던 무기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각목이나 화염병 따위였다.

이날 오전 10시께 시민 대표 4명이 7공수여단 35대대장의 안내로 도청에서 장형태 도지사와 면담하고 공수부대의 철수, 연행자의 석방, 과잉진압의 사과, 계엄사령관과의 면담을 주선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시위 군중은 낮 12시까지 공수부대 철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오후 1시께 도청 앞에서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가 시작됐다. 도청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것(군정 상황일지)과 동시적으로 었드려 쏜, 무릎 쏜 자세로 사격이 이뤄졌다. 이때 도청 주변 고층 건물 옥상에서도 저격수들이 배

치돼 시민을 향해 사격한 사실이 입증됐다.

여기에 더해 계엄군이 투입한 헬기가 금남로 상공에서 전일빌딩 등 민간을 향해 무차별 사격한 사실이 국과수 감정을 통해 드러나면서 당시 시민들의 증언처럼 “그들은 진압이 아닌 계획에 따른 살상 작전을 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모습이다.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조비오 신부도 “이제 평화적 해결은 끝났구나. 목적을 가지고서 공수부대를 투입시켰구나”라며 탄식했다고 한다.

집단 발포 이후 시민들은 무장을 시작했다. 광주·전남지역 경찰서 무기고에서 총기를 꺼내왔지만 이 과정에서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게 5월 단체측 설명이다.

한편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발포에 대해 당시 군 관계자들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지금까지 한결같이 자위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우발적인 발포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해서도 군 관계자들은 부인해 왔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단속

민족의 대명절 설(28일)을 앞두고 16일 광주 서구청 경제과 직원들이 양동시장에서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유족들, 인양 지연 정부·업체에 분통

민주당 세월호 인양 설명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에서 정부와 인양업체로부터 세월호 인양 경과 보고를 받는 ‘세월호 인양 대국민 설명회’를 열었다.

해양수산부 인양추진단의 김현태 부단장과 장기욱 과장, 지양 엔 셀비지 부국장과 컨설팅 업체인 티엘씨(TMC)의 사이먼 버든 지부장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유족들은 정부와 업체들이 제시한 인양지연 이유에 분통을 터뜨리며 거세게 항의했다.

보고회에서는 인양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논의의 초점이 됐다. 해수부와 셀비지측이 사고와 유수 등 기상조건과 선체의 상황이 예측보다 나빠 인양이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양 부국장은 “인양을 위해 잔존류 회수작업을 해야하는데, 입찰시 해수부에서 받은 정보상으로는 잔존류가 오 일간에 있다고 봤는데, 실제로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었다”며 “또한

좌현 밑바닥에 퇴적층이 대단히 견고해 이 작업을 하는데 5개월 정도가 소요됐다”고 밝혔다. 지양 부국장은 이어 “이런 상황으로 해수부와 업체의 계약을 오는 6월 말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인양을 지원하는 업체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셀비지와 당초 7 : 3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국업체 오션 씨엔아이는 국내 장비 동원과 행정 업무를 담당했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장비조달 업무에 차질을 빚으면서 300여명의 현장인력 부식제공 및 비자 발급 지원 등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인양 시기를 발표한 것이냐”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특히 “밥 해주고 비자 해주는 데는 아무런 기술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현장에 300명은커녕 40명밖에 없다”라고 소리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도 공사 따른 어업 피해 인정 어렵다”

국가 상대 29억대 손해소 어민들 패소

향소심서 원심 뒤집어

국가를 상대로 한 29억원대 어업피해 손해배상 향소심에서 원심이 뒤집혀 어민들이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해남지역 어촌계 9곳 등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원고는 해남군수로부터 어업면허를 받고 연안어장에서 굴·고막·바지락 등의 양식어업 등을 하는 어촌계 등이다. 이들은 완도에서 충남 금산에 이르는 국도 13호선 공사 중 어장 인근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유물질이 어장까지 확산돼 어획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13년 12월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원고 소가 29억3713만여 원) 판결했다. 국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 공사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어촌계는 어업면허 내용 중 ‘각종 공의 사업 시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진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관이 들어 있고, 원고 일부는 고시 이후에 어업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별 통보 양심 50대 男, 애인 전원주택 창고에 불 질러



○~50대 남성이 내연관계에 있던 60대 여성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데 양심을 품고 여성의 전원주택 창고에 침입해 불을 놓았다가 경찰서행.

○1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57)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 한적한 마을에 자리 잡은 A(여·63)씨의 전원주택 창고에 들어간 후 화장지에 불을 놓아 세탁기와

보일러 등을 홀러당 타게 하였다는 것.

○경찰은 소방당국으로부터 방화로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고 현장 CCTV를 분석해 담을 뛰어넘는 이씨 모습을 포착하고 출석을 요구했는데, 경찰에 제발로 나온 그는 “3년간 사귀던 애인이 갑자기 헤어지자고 해서 화가나 불을 질렀다. 못한 짓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서둘러 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평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학부 편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우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석사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9(월) ~ 18(수)
• 전 형 일 : 2017. 1. 23(월)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 ~ 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대학원 신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6(월)

•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7. 2. 8(수) 오후 2시30분
	박사	목회학과(D.Min.)	○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7. 2. 8(수) 오전 10시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2017. 2. 8(수) 오후 3시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 (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6(월)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7. 2. 8(수) 오후 2시 30분